

여성 얼굴의 매력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남성의 개인차 요인들

이경성 · 한덕용 · 이용진

성균관대학교 한국결혼문화
심리학과 연구소

남성이 여성의 얼굴 모습을 보고 매력을 느끼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해서 다음 가설들을 검증하였다. 먼저 선행연구에서 남자 대학생들이 여성의 얼굴에서 매력을 느끼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남성성-여성성, 이지성-맹함의 두 차원들을 알아낸 결과가 30대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여성의 얼굴에서 남성이 매력을 느끼는데 영향을 미치는 성격 및 태도 요인들 가운데 남성성,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신념, 지배성, 외향성, 그리고 의존성이 여성 얼굴의 남성성-여성성, 이지성-맹함의 두 차원들의 효과를 조절하는지 알아보았다. 30대 남성 129명을 대상으로 수행된 본 연구의 중요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남성들은 여성스러운 얼굴 모습의 여성에 대해서는 그 여성이 맹해 보이든지 이지적으로 보이든지 상관없이 매력적이라고 평가하였지만, 이와 달리 남성스러운 얼굴 모습의 여성에 대해서는 이지적으로 보일 때보다 맹해 보이면 덜 매력적이라고 평가하였다. (2) 남성성이나 전통적 성역할 신념이 높은 남성, 혹은 의존성이 낮은 남성들은 각각 남성성이나 전통적 성역할신념이 낮은 남성, 혹은 의존성이 높은 남성들보다 남성스러운 얼굴 모습의 여성을 더 매력적이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전통적 성역할 신념이 높은 남성과 의존성 수준이 낮은 남성들은 여성스러운 얼굴 모습의 여성을 더 매력적이라고 평가하였다. (3) 지배성, 외향성, 및 전통적 성역할 신념이 높은 남성들은 낮은 남성들에 비해서 여성스럽고 맹한 얼굴 모습의 여성을 더 매력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주요어: 여성성 얼굴 인상 차원, 이지성 얼굴 인상 차원, 매력, 남성성, 전통적 성역할, 지배성, 외향성, 의존성

어떤 남성들은 손예진이 매력적이라고 하고, 어떤 남성들은 전지현이 매력적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과연 남성들이 여성의 얼굴에서 공통으로 매력을 느끼는 차원들이 있는가? 그리고 남성들이 동일한 얼굴 모습의 여성에 대한 매력의 평가에 달리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성격이나 태도 요인들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여성의 얼굴 모습에 대한 매력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 차원들이 반복해서 지지되는지 알아보고, 매력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자의 중요한 성격 특성들도 알아보려고 한다.

현재까지 얼굴매력에 대한 연구에서는 매력을 일차원적 구성개념으로 간주하는 관점이 지배적이다. 이 연구들에서는 얼굴이 긍정적인 특성을 많이 지닐수록 더 매력적으로 평가된다고 가정한다. 이 관점에서 다루어지는 연구들로서 원형에 가까운 얼굴일수록 매력적으로 평가된다는 Langlois와 Roggman(1990)의 연구나 얼굴의 좌우가 비대칭일 때보다 대칭인 얼굴이 더 매력적으로 평가된다는 Noor와 Evans(2003)의 연구 혹은 눈의 크기가 작기 보다 클수록 더 매력적으로 평

가된다는 Jones(1995)의 결과들을 들 수 있다. 그러나 Cunningham(1986)을 비롯한 일부 학자들은 얼굴의 여러 특성들의 조합으로 다양한 얼굴 인상이 형성되므로 이 결과로 얼굴에 대한 매력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면 Wheeler와 동료들(미발표, Cunningham, 1986에서 인용)은 각기 다른 얼굴 인상이 모두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연구에서 예쁘장하게 생겨서 일명 “꽃미남(pretty boy)”으로 불리는 남성들은 친절하고 예술적으로 지각되며 매력적으로 평가되지만, 반면에 튼튼하고 강해 보여서 일명 “강건남(rugged boy)”으로 불리는 남성도 역시 남성스럽게 여겨지며 매력적으로 평가되었다. Cunningham도 매력적으로 평가되는 얼굴을 지닌 여성이 크게 두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그는 대학졸업 앨범에 있는 여성의 사진과 미스 유니버스의 사진들을 모아서 남학생들에게 매력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남학생들은 눈이 크고 코와 입이 작아서 어려보이는 동안형의 여성과 아울러 눈이 크고 광대뼈가 나오고 볼이 좁으며 웃을 때 입이 커서 성숙한 얼굴 인상을 지닌 여성을 모두 매력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이 연구들은 얼굴의 매력이 여러 차원에서 지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어려 보이는 얼굴 특징을 보이는 동안형의 매력을 평가한 연구들과 달리 성숙한 모습의 매력을 평가한 연구들의 결과는 일관되지 않아서 좋거나 나쁘다고 평가한 결과들이 다소 혼재되어 있다. 성숙한 얼굴 인상과 매력의 평가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연구들(Berry & McArthur, 1985; Cunningham, Barbee, & Pike, 1990, 연구 2, 연구 3; McArthur & Berry, 1987; Zebrowitz, Montepare, & Lee, 1993)이나 낮은 상관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들(Berry, 1991; Berry & Brownlow, 1989)을 보면 대체로 성숙한 얼굴 인상을 어려보이는 얼굴 인상과 단일차원의 반대 극단으로 다루었거나(예, Berry & Brownlow, 1989; Berry & McArthur, 1985; Berry, 1991) 성숙한 얼굴 인상을 지닌 남성에게 대한 매력을 평가하는 연구였다(Cunningham, Barbee, & Pike, 1990, 연구 2, 연구 3). 이 가운데 Cunningham이 1990년에 동료들과 수행한 연구를 보면(Cunningham, Barbee, & Pike, 1990) 여성들은 남성의 외모에서 풍기는 인상을 근거로 매력을 평가하며, 인상이 본인의 동기를 충족시켜 주는 수준에 따라서 매력의 평가가 달라짐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여성들이 돌봐주고 싶은 느낌을 주는 외모를 지닌 남성, 성적으로 성숙하고 지배적인 특성을 소유한 듯 보이는 남성, 그리고 사교적이고 접근하기 쉽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듯이 보이는 느낌을 주는 외모를 지닌 남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점에 착안하였다. 이러한 남성은 어려 보이는 얼굴 특징과 성숙해 보이는 얼굴 특징, 그리고 표현적인 얼굴 특징이 적절하게 조합된 사람인데, 여성들이 이런 남성에게 매력을 느끼는지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여성들은 어려 보이는 특징인 큰 눈, 성숙해 보이는 특징인 돌출된 광대뼈와 큰 턱, 표현적 특징인 환한 웃음, 그리고 옷차림이 귀티나는 남성에게 매력을 더 느꼈다. 여성들은 또한 동안형의 얼굴일수록 덜 남성적이라고 지각하였으며, 너무 동안형이거나 너무 성숙한 인상이 아닌 중간 수준의 남성스러운 외모를 더 선호하였다. 또한 데이트하거나 결혼할 상대방으로서의 선호에 응답하게 했을 때 전반적 매력을 평가할 때보다 지각된 남성성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는 사람들이 외모에서 풍기는 인상을 근거로 상대의 특성을 추론하며, 상대의 특성을 추론한 결과가 본인의 동기를 충족시켜 주는 수준에 따라서 매력을 평가함을 시사한다.

매력 평정자가 지닌 동기나 특성에 따라서 선호하는 외모가 다르다는 사실은 지각자의 성별, 인종, 혹은 연령에 따라서 매력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결과를 보고한 연구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Mckelvie(1993)는 지각자의 성별에 따라서 매력의 평가가 다름을 보여주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는 31명의 대학생(17명의 여성과 14명의 남성)에게 16개 얼굴사진 자극에 대해서 매력을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이들은 젊어 보이는 얼굴일수록 더 매력적이라고 평가하였으며, 나이들어 보이는 얼굴일수록 더 매력적이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여성들이 평가하였을 때에는 나타나지 않아서 자극에 대한 평가가 지각자의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또 다른 연구로 Wheeler와 Kim(1997)은 지각자의 인종에 따라서 얼굴 자극에 대한 매력의 평가가 달라진다고 보고하였다. 그들은 아시아계 학생, 라틴아메리카계 학생, 그리고 미국계 백인들에게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흑인, 그리고 백인 여성의 얼굴 사진을 보고 매력을 평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아시아계 학생들은 얼굴사진을 보고 매력을 평가할 때 라틴아메리카 학생이나 미국계 백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성적 성숙을 드러내는 얼굴의 특징들에 의해서 영향을 덜 받았다. 이러한 결과들은 지각자가 지니는 특성에 따라서 자극 대상의 매력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시아 사람들이 라틴아메리카계나 미국인들에 비해서 성적 성숙을 드러내는 얼굴을 지닌 여성을 덜 매력적으로 평가한 것은 아시아 사람들이 라틴아메리카계나 미국 백인들에 비해서 성활동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기보다 순종적이고 수동적인 여성을 더 선호하기 때문일 수 있다.

그렇다면 여성의 매력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남성의 특성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여성의 얼굴 특징과 매력의 관계를 다룬 국외 연구들을 종합하면 대체로 어려 보이는 동안형의 얼굴 인상을 지닌 여성이나 여성스러운 외모를 지닌 여성이 매력적이라고 평가되었다. 진화론의 관점에서 보면 남성은 가사와 육아의 전통적 성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고 추론되는 여성이나 나이들기보다 어린 여성에게 매력을 느끼므로 대부분의 남성들은 동안형의 여성이나 여성스러운 인상을 지닌 여성을 선호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런데 남성들이 남성적이거나(Nida & Williams, 1977) 양성적(Bridges, 1981)인 여성보다 여성스러운 여성을 선호하는 경향은 남성이 지닌 특성에 따라서 달라서 남성들이 지니는 성차별주의적 신념, 즉 전통적 성역할 신념이 높을수록 우세했다(Keisling & Gynther, 1993).

전통적 성역할 신념은 전통적인 성역할을 유지하려는 신념과 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특성관련 고정관념에 대한 집착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양희, 정경아, 2000). 이 관점으로 보면 전통적 성역할 신념이 높은 사람일수록 남성은 남성성이 높고 여성은 여성성이 높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신념이 높은 남성들일수록 여성성이 높은 여성에게 매력을 느낀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전통적 성역할 신념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성향인 남성성에서도 전통적 성역할 신념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예측이 가능하다. 즉, 남성성이 높은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남성들에 비해서 남성적이기보다 여성스럽게 보이는 여성을 선호한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남성성이 높은 남성들이 남성적이기보다 여성스러운 여성을 선호한다는 사실은 Winch(1958)

의 상보성가설이나 Murstein(1970)의 자극-가치-역할(SVR, Stimulus-Value-Role)이론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Winch는 자신의 욕구나 특성과 일치하는 사람보다 자신과 대조적이며 자신이 갖고 있지 못한 특성을 지닌 사람에게 호감을 느낀다고 제안하였다. 다른 특성들과 달리 성역할과 관련된 특성들로서 남성성-여성성이나 지배성-순종성 등의 성격 특성을 다룬 연구들에서는 대체로 Winch의 주장이 지지됨을 볼 수 있다. 한 예로서 Dryer와 Horowitz는 피험자와 실험협조자 한 명씩을 짝 지워서 문제를 풀게 하였는데, 실험협조자를 지배적으로 행동하거나 순종적으로 행동하도록 했을 때, 상보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실험협조자에 대해서 매력을 더 느꼈다. 즉, 지배-순종, 순종-지배의 짝으로 문제를 풀었던 사람들이 유사한 특성을 지닌 사람과 짝지었을 때보다 상호작용에서 훨씬 더 만족하였다. 이 가설로 보면 남성성이 높은 남성들은 남성스럽게 보다 여성스러운 여성에게 더 호감을 느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Murstein(1970)의 SVR이론에 의하면 오래된 관계의 지속과 만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서로의 역할이 조화되는 수준으로 남성성이 높은 남성이거나 전통적 성역할 신념이 높은 남성들은 그렇지 않은 남성들에 비해서 여성스러운 여성과 관계를 지속할 때 만족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남성들은 남성스럽기보다 여성스러운 여성에게 더 매력을 느끼고 더욱 선호한다고 예측할 수 있다.

한편 남성스러운 여성을 선호하는 남성들은 어떤 특성을 지닌 남성일까? 의존성이 높은 남성들은 타인에게 의지하고 보살핌을 받으려는 동기가 높기 때문에(김은희·윤호균, 2002) 여성스러운 여성보다 남성스러운 여성이 의지하기 좋고 그녀로부터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고 추론하여 높은 매력을 느끼기 쉽다. 이 때문에 의존성이 높은 남성들은 의존성이 낮은 남성들에 비해서 남성적이고 독립성이 높아 보이는 남성스러운 얼굴 모습의 여성을 선호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정리된 바를 요약하면 남성성이 높은 남성 혹은 전통적 성역할 신념이 높은 남성들은 이성의 매력을 평가할 때 각각 그렇지 않은 남성들에 비해서 남성스럽기보다 여성스럽게 보이는 얼굴 인상을 지닌 여성이 더 매력적이라고 평가하지만, 반면에 의존성이 높은 남성들은 낮은 남성들에 비해서 여성스럽게 보이는 얼굴 인상을 지닌 여성보다 남성스럽게 보이는 얼굴 인상을 지닌 여성이 더 매력적이라고 평가할 것으로 추론된다.

다음으로 평정자의 개인차 요인과 여성 얼굴이 지니는 여성성, 이지성 차원의 상호작용 효과에 관해서 살펴보자. 진화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지적인 여성은 적응 능력이 높은 여성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남성들은 자녀를 양육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현명한 여성에게 매력을 느낀다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맹해 보이는 얼굴 인상을 지닌 여성보다 이지적으로 보이는 얼굴 인상을 지닌 여성에게 매력을 느끼기 쉽다. 그러나 이지적인 얼굴 인상의 여성은 현명하고 지적인 여성으로 지각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온순하고 등글등글하기보다 야무지고 강하다고 지각된다(이경성, 2002). 그런데 남성들은 독립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한 여성보다 온순하고 순종적인 여성을 선호하며, 이러한 경향은 남성들이 지니는 지배성(Kenrick, Neuberg, Zierk, & Krones, 1994) 혹은 전통적 성역할 신념이 높을수록 강하다(Keisling & Gynther, 1993). 지배성이 높은 남성들이 온순하고 순종적인 여성을 선호하는 현상 또한 Winch의 상보성 가설로 설명할 수 있다. 상보성 가설에 의하면 지배적인 남성은 자신과 유사한 수준의 지배적 여성보다 대조적으

로 순종적인 여성을 선호할 것이다. 전통적 성역할 신념이 높은 남성들도 여성은 지배적이기 보다 온순하고 순종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므로 온순하고 순종적인 여성에게 매력을 더 느낄 것으로 추론된다. 따라서 지배적이거나 전통적 성역할 신념이 높은 남성들은 여성스러우면서 이지적인 얼굴 인상을 지닌 여성이 야무지고 자기 주장이 강한 반면에 여성스러우면서 멍해 보이는 얼굴 인상을 지닌 여성이 유순하고 순종적이라고 지각해서 더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배성 혹은 전통적 성역할 신념이 높은 남성들은 그렇지 않은 남성들보다 여성스러우면서 이지적인 얼굴 인상을 지닌 여성을 덜 매력적이라고 평가하고, 여성스러우면서 멍한 얼굴 인상을 지닌 여성이 더 매력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남성스러운 얼굴 인상을 지닌 여성은 이미 중성적이고 남자답다고 지각되기 때문에(이경성, 2002) 멍해 보인다고 해서 유순하다고 지각되기는 어렵다. 즉, 여성스러우면서 멍해 보이는 얼굴 인상을 지닌 여성과 달리 남성스러운 얼굴 인상을 지닌 여성의 경우에는 멍해 보이는 인상이 매력의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지 않을 수 있다. 요약하여 정리하면, 지배성 혹은 전통의 성역할 신념이 높은 남성들은 각각 그렇지 않은 남성들보다 여성스러우면서 이지적으로 보이는 얼굴 인상을 지닌 여성을 덜 매력적이라고 평가하고, 여성스러우면서 멍해 보이는 얼굴 인상을 지닌 여성이 더 매력적이라고 평가할 것으로 추론된다.

지금까지 여성의 매력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남성의 개인차 요인들로서 남성성, 전통적 성역할 신념, 지배성 및 의존성에 관한 본 연구의 가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남성성, 전통적 성역할 신념, 지배성, 및 의존성 이외에 성격 연구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5요인(Big five factor) 가운데 외향성에 따라서 여성의 여성성과 이지성 인상 차원에 대한 매력 평가가 달라지는 지도 함께 알아보았다. 외향성은 성격을 기술할 때 가장 자주 사용되는 성격 특성들 가운데 하나로 성격 특성의 5요인에서 문화보편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이나 Cattell, Guilford, Eysenck 등 특성이론가들이 모두 중요하게 다룬 특성이다. 그러므로 이 요인은 매력을 평가할 때도 역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성격 특성이다. IPIP 검사(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 2001)를 개발한 Goldberg(1981)이나 5요인을 주장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외향성은 개념적인 정의에서 주로 지배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외향성의 정의와 측정에 따르면 외향성은 지배성과 상관이 높으리라고 가정된다. 이 가정이 타당성이 있다면 외향성이 매력평가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성의 지배성에 관한 가설과 동일한 예측이 가능하다. 즉, 외향성 수준이 높은 남성들은 낮은 남성들보다 여성스러우면서 이지적인 얼굴 인상을 지닌 여성을 덜 매력적이라고 평가하고 여성스러우면서 멍해 보이는 얼굴 인상을 지닌 여성이 더 매력적이라고 평가할 것으로 추론된다.

본 연구에서는 남성들이 지니는 개인의 성향 가운데 여성의 얼굴을 보고 매력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추론할 수 있는 요인들로서 남성성, 전통적 성역할 신념, 지배성, 외향성, 그리고 의존성에 따라서 여성의 매력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20대 중반 여성의 사진들을 자극으로 선정해서 결혼 적령기에 있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남성들에게 이들에 대한 매력을 평가하도록 계획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남성의 개인차 요인들이 여성의 매력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는 목적 이외에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의

남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이경성·한덕웅, 2003)의 결과가 결혼 적령기에 있는 남성들에게도 일반화되는지 부가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남학생들이 여성의 얼굴 인상을 지각하는 차원들 가운데 ‘남자답다-여성스럽다’ 차원과 ‘맹하다-이지적이다’ 차원에서 여성의 매력을 평가하며(연구 1), 특히 남성스러우면서 맹한 얼굴 인상을 지닌 여성을 다른 얼굴 모습을 지닌 여성들에 비해서 덜 매력적이라고 평가한다는 사실을 알아낸 바 있다(연구 2)¹⁾.

본 연구에서는 (1) 남성들이 남성스러우면서 맹한 얼굴 인상을 지닌 여성을 다른 여성들에 비해서 덜 매력적이라고 평가하는 결과가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남성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을 때에도 반복해서 검증되는지 알아보고, (2) 평가자인 남성의 성격 특성들에 따라서 이 두 인상 차원들이 매력의 평가에서 조절 요인으로 작용하여 달리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두 주제들 가운데 먼저 선행연구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얻은 결과에 근거를 두고 본 연구에서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반복검증하게 되는 가설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남성들은 남성스러운 얼굴 인상을 지닌 여성보다 여성스러운 얼굴 인상을 지닌 여성에게 더 매력을 느낄 것이다. (가설 2) 남성들은 맹한 얼굴 인상을 지닌 여성보다 이지적인 얼굴 인상을 지닌 여성에게 더 매력을 느낄 것이다. (가설 3) 남성들은 여성이 여성스러운 얼굴 인상을 지닌 경우 그 여성이 맹한 얼굴 인상을 지녔는지 이지적인 얼굴 인상을 지녔는지에 따라서 매력의 평가가 다르지 않지만 반면에 남성스러운 얼굴 인상을 지닌 여성들에 대해서는 그 여성이 맹한 얼굴 인상을 지녔을 때 이지적인 얼굴 인상을 지녔을 때에 비해서 더 매력적이지 않다고 평가할 것이다.

앞의 가설들이 도출된 논리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추가로 다음의 두 가설들도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4) 남성성이 높은 남성들은 낮은 남성들보다, 전통적 성역할신념이 높은 남성들은 낮은 남성들보다, 그리고 의존성이 낮은 남성들은 높은 남성들보다 각각 (가설 4-1) 남성스러운 얼굴 모습의 여성에게 덜 매력을 느끼고, (가설 4-2) 여성스러운 얼굴 모습의 여성에게 더 매력을 느낄 것이다. (가설 5) 지배성이 높은 남성들은 낮은 남성들보다, 외향성이 높은 남성들은 낮은 남성들보다, 그리고 전통의 성역할 신념이 높은 남성들은 낮은 남성들보다 각각 (가설 5-1) 여성스러우면서 이지적인 얼굴 인상을 지닌 여성을 덜 매력적으로 평가하고, (가설 5-2) 여성스러우면서 맹한 얼굴 인상을 지닌 여성을 더 매력적이라고 평가할 것이다.

연구방법

피험자

실험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근무하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미혼 남성 129명에게 실시되었다. 피험자는 한 결혼정보업체에 회원으로 등록된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남성들 가운데 무작위로 150명을 선정하여 조사에 참여하도록 부탁하는 메일을 보낸 후, 이에 대해서 긍정

1) 이 연구의 이론적 배경은 이경성·한덕웅(2003)을 참조하기 바란다.

적 회신을 한 129명에게 실시하였다. 참여자들은 대부분 4년제 대학을 졸업했고(전문대졸 2%, 4년제 졸 77%, 석사 17%, 박사 2%), 고향은 주로 서울/경기(35%)와 경상도(31%)였으며(전라도 17%, 충청도 10%, 기타 7%), 결혼할 경우 분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76%). 참여자들 가운데 장남은 45%(58명), 장남이 아닌 사람은 55%(71명)였으며, 평균 연령은 32.5세였다.

실험설계

먼저 여성의 얼굴 사진이 지니는 여성성과 이지성의 두 인상 차원들이 매력에 미치는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내기 위해 선형연구의 결과를 반복검증하였다. 즉, 남성들에게 2(여성성 : 남자답다/여성스럽다)*2(이지성 : 멍하다/이지적이다)의 두 차원이 구성하는 네 조건들 가운데 한 조건에 해당하는 여성의 사진을 제시하고 매력을 평정하도록 한 자료를 2원 피험자간 설계에 의해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평정자의 개인차 요인들이 여성 얼굴의 여성성과 이지성에 대한 매력 평가에 조절변인으로 영향을 미쳐서 가산적으로 상호작용 효과를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3원 분석도 실시했다. 즉, 각 성격 특성별로 각각 높거나 낮은 점수를 얻은 남성들을 양분(개인차 요인 : 저/고)하고 이들이 2(여성성 : 남자답다/여성스럽다)*2(이지성 : 멍하다/이지적이다)의 두 차원이 구성하는 네 조건들 가운데 한 조건에 해당하는 한 여성 사진의 매력을 평정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실험에 사용될 얼굴 사진의 선정

20대 중반에 속하는 여성 사진들 가운데 여성성, 이지성의 두 인상 차원 평정치와 매력 수준의 측정치를 기준으로 실험에 사용할 사진 자극을 선정하였다. (1) 먼저 10명의 여성이 한 결혼정보업체에 회원으로 등록한 20대 중반 여성들의 얼굴 사진을 보고 매력 수준에 따라서 구분하여, 각각 매력적인 여성, 매력 수준이 중간인 여성, 비매력적인 여성을 각각 15명씩 총 45명을 선정하였다. (2) 다음으로 선정된 45명의 여성 얼굴 사진을 20대 후반인 50명의 남성들이 보고 네 얼굴 인상 차원 즉, '남자답다-여성스럽다', '멍하다-이지적이다', '경박하다-점잖다', 및 '사납다-순하다' 얼굴 인상 차원(이경성 · 한덕웅, 2003)과 매력 수준에 따라서 각각 7점 척도에서 평정하였다. (3) 평정 결과에서 매력 수준이 중간(7점 척도에서 3.57점~4.34점 범위)으로 평가되는 사진들 가운데 '남자답다-여성스럽다' 차원 또는 '멍하다-이지적이다' 차원에서 평정한 값이 각각 높거나(4.5~4.7점) 낮은(3.11~3.34점) 사진을 가려내어서 두 차원으로 구성되는 네 조건별로 1장씩 총 4장의 사진들을 자극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실험절차

실험은 모두 온라인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험자들에게 실험에 참여하기 전 조용한 곳에서 혼자 실험에 참여하도록 요청하였다. 피험자들이 해당 서버에 접속하면 먼저 연구의 목적을 소개한 후 한 여성의 얼굴사진을 보고 그 여성의 매력과 인상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본인의 성격 특성을 측정하는 척도들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실험의 모든 절차는 컴퓨터로 프로그래밍되어서 제시되었다. 피험자들에게 제시된 구체적인 연구의 지시문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남성들이

어떤 얼굴 모습의 여성을 좋아하고 왜 좋아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기획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크게 [1] 남성들이 한 여성의 인상에 대해서 판단하는 부분과 [2] 남성 본인의 성격을 진단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본인의 성격 및 심리적 특성들을 진단해 드리며 이 결과를 기초로 자신이 어떤 여성과 어울리는지에 대해서도 조언해 드립니다.” 실험에 참여한 모든 피험자들에게 성격검사의 결과를 해석해 주었다.

측정

매력은 “위의 사진에 나온 여성은 얼마나 매력적입니까?”에 대해서 7점척도(1 전혀 매력적이지 않다~ 4 중간~ 7 매우 매력적이다)로 측정하였다. 얼굴 인상의 평정치는 ‘남자답다-여성스럽다’와 ‘맹하다-이지적이다’ 차원에 대해서 각각 7점척도(1 매우~ 4 중간~ 7 매우)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남성들이 여성의 얼굴 모습에 대해서 매력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 성격 특성들 가운데 남성성은 정진경(1990)이 남성성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표준화한 20 문항 중 요인부하량이 .30 이상인 10문항(본 연구의 자료에서 $\alpha=.84$)을 사용하였다. 지배성은 16PF 가운데 지배성을 측정하는 14문항($\alpha=.76$)을 사용하였으며, 외향성은 전반적 성격 특성을 측정하는데 흔히 사용되는 5요인검사 가운데 하나인 IPIP(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 2001) 검사에서 외향성을 측정하는 10문항들($\alpha=.86$)을 사용했다. 의존성은 김은희와 윤호균의 의존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한 8문항($\alpha=.72$)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전통의 성역할 신념은 김양희와 정경아(2000)가 개발한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 가운데 성역할과 관련되는 가정생활척도 문항($\alpha=.76$)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성격 특성들은 모두 5점척도(1 매우 그렇지 않다~5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²⁾.

결 과

독립변인의 조작효과

사진 재료에서 여성성(남자답다/여성스럽다)의 인상 차원이 본 연구에서 의도한대로 조작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얼굴 인상이 남자다운지 여성스러운지 7점척도에서 평정한 질문에 대해서 2(여성성)*2(이지성)의 변량분석하였다. 그 결과, 여성성의 주효과만 유의하여서 여성성이 낮은 조건($M = 3.72$)보다 여성성이 높은 조건($M = 4.95$)에서 얼굴 인상이 더 여성스럽다고 평정하였다, $F(1, 128) = 48.49, p < .0001$. 다음으로 이지성(맹하다/이지적이다)의 인상 차원이 조작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얼굴 인상이 맹한지 이지적인지 평정한 자료를 2(여성성)*2(이지성)의 2원 변량분석한 결과에서도 이지성의 주효과만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이지성이 높은 조건($M = 4.59$)에서 낮은 조건($M = 3.65$)보다 얼굴 인상을 더 이지적이라고 평정하였다, $F(1, 128) = 38.33, p < .0001$. 이 분석 결과에서 모두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고 조작된 주효과만 나타

2) 정진경(1990)의 남성성 측정 문항들의 내적일치도 $\alpha=.84$ 이며, 의존성 검사의 내적일치도 $\alpha=.82$,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3이고, 김양희와 정경아(2000)의 가정생활척도의 내적일치도 $\alpha=.91$ 이었다.

표 1. 여성성 및 이지성 수준에서 높거나 낮은 얼굴 인상을 지닌 여성에 대한 매력의 평가

	남성적-여성적			저			고			전체								
	저			고			전체			저			고			전체		
	저	고	전체	저	고	전체	저	고	전체	저	고	전체	저	고	전체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전반적 매력	2.97(1.09)	3.83(1.07)	3.39(1.15)	4.65(1.39)	4.89(1.25)	4.77(1.32)	3.86(1.51)	4.42(1.28)	4.14(1.42)									
데이트 상대로서	2.20(0.80)	3.14(0.91)	2.66(0.97)	4.00(1.39)	3.97(1.25)	3.99(1.31)	3.16(1.46)	3.60(1.18)	3.38(1.34)									
배우자로서	2.33(0.92)	2.97(1.01)	2.64(1.01)	3.71(1.29)	3.86(1.29)	3.79(1.28)	3.06(1.31)	3.46(1.25)	3.26(1.29)									

낮으므로 여성얼굴의 사진 재료에서 여성성과 이지성의 조작은 모두 잘 이루어졌다.

얼굴 인상의 여성성과 이지성이 매력에 미치는 영향(표 1 참조)

20대 초반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이경성·한덕웅, 2003)의 결과가 20대 후반 및 30대 초반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반복해서 검증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얼굴 사진들에 대해서 매력을 평정한 자료를 사용하여 2(여성성) * 2(이지성)의 2원 변량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남성들은 남성스러운 얼굴 인상을 지닌 여성(M=3.39)보다 여성스러운 얼굴 인상을 지닌 여성(M=4.77)에게 더 매력을 느껴서 가설 1이 지지되었다, $F(1, 128) = 40.32, p < .0001$.

남성들은 또한 맹한 얼굴 인상을 지닌 여성(M=3.86)보다 이지적인 얼굴 인상(M=4.42)을 지닌 여성에게 더 매력을 느껴서 가설 2도 지지되었다, $F(1, 128) = 6.52, p < .05$.

마지막으로 남성들은 여성스러운 얼굴 인상을 지닌 여성에 대해서는 그 여성이 맹한 얼굴 인상을 지녔는지(M=4.65) 이지적인 얼굴 인상을 지녔는지(M=4.89)에 따라서 매력의 평가가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으나, $F(1, 128) = 1.06, p < .50$, 남성스러우면서 맹한 얼굴 인상을 지닌 여성(M=2.97)을

표 2. 각 개인차 요인별로 높거나 낮은 점수를 얻은 집단의 각 요인별 평균 및 개인차 요인들 간 상호상관

	저			고			전체			상관			
	저	고	전체	저	고	전체	남성성	지배성	외향성	의존성	의존성	의존성	의존성
	MEAN(SD)			MEAN(SD)			MEAN(SD)						
남성성	3.00(0.28)	3.79(0.27)	3.36(0.48)										
지배성	2.89(0.25)	3.51(0.23)	3.16(0.39)				.54***						
외향성	2.68(0.41)	3.64(0.35)	3.12(0.61)				.43***	.43***					
의존성	2.31(0.22)	3.03(0.24)	2.67(0.43)				-.28**	-.25**	-.04				
전통적 성역할 신념	2.95(0.30)	3.86(0.29)	3.46(0.54)				.33***	.20*	.03				-.25**

주) 개인차 요인들은 모두 5점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성향을 지녔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남성성 점수가 높을수록 남성적 성향이 강하며, 의존성 점수가 높을수록 의존적 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남성스러우면서 이지적인 얼굴 인상을 지닌 여성($M=3.83$)보다 더 매력적이지 않다고 평정하여서 가설 3도 지지되었다, $F(1, 128) = 7.34, p < .01$.

매력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남성의 성격 특성들

본 연구에서는 남성 평정자들이 지니는 개인차 요인들로서 남성성, 지배성, 외향성, 의존성, 및 전통적 성역할 신념의 수준에서 각각 중앙치를 기준으로 높거나 낮은 점수를 얻은 남성들을 양분하였다(표 2 참조). 이 수준에 따라서 ‘남자답다-여성스럽다’ 차원과 ‘맹하다-이지적이다’ 차원에서 높거나 낮은 값을 얻은 사진의 여성에 대한 매력의 평가가 달라지는지 3원 변량분석을 통해서 알아보았다. 이 분석을 통해서 얻은 중요한 연구 결과들을 얼굴 인상 차원들에 따라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남성성-여성성 얼굴 인상차원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 특성들 : 남성들이 지니는 어떤 성격 특성들이 남성스럽거나 여성스러운 얼굴 인상을 지닌 여성에 대한 매력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결과, 남성성, 전통적 성역할 신념, 및 의존성의 각 성격 특성과 여성성 인상 차원의 2원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남성성이나 전통적 성역할 신념이 높은 남성들(남성성 고 매력평가 $M=3.00$, 전통적 성역할 신념 고 $M=3.14$)이 낮은 남성들보다(남성성 저 $M=3.64$, 전통적 성역할 신념 저 $M=3.75$) 남성스러운 얼굴 인상을 지닌 여성들이 덜 매력적이라고

표 3. 얼굴 인상의 여성성과 이지성 수준 및 남성의 개인차 변인에 따른 매력평가

	남성적-여성적	저			고			전체		
		저	고	전체	저	고	전체	저	고	전체
		MEAN(SD)								
맹하다-이지적	저	3.26(0.93)	4.06(0.96)	3.64(1.01)	4.40(1.60)	4.76(1.52)	4.57(1.55)	3.85(1.42)	4.41(1.30)	4.11(1.39)
	고	2.45(1.21)	3.50(1.16)	3.00(1.27)	5.00(0.96)	5.00(1.00)	5.00(0.96)	3.88(1.66)	4.42(1.28)	4.18(1.47)
	전체	2.97(1.09)	3.83(1.07)	3.39(1.15)	4.65(1.39)	4.89(1.25)	4.77(1.32)	3.86(1.51)	4.42(1.28)	4.14(1.42)
남성성	저	3.00(1.10)	4.00(1.04)	3.39(1.17)	4.24(1.44)	5.06(1.58)	4.62(1.54)	3.65(1.42)	4.63(1.47)	4.07(1.51)
	고	2.91(1.13)	3.71(1.10)	3.39(1.16)	5.31(1.03)	4.72(0.82)	4.97(0.94)	4.21(1.61)	4.23(1.08)	4.22(1.31)
	전체	2.97(1.09)	3.83(1.07)	3.39(1.15)	4.65(1.39)	4.89(1.25)	4.77(1.32)	3.86(1.51)	4.42(1.28)	4.14(1.42)
지배성	저	3.33(1.11)	4.00(1.18)	3.70(1.18)	4.30(1.55)	5.32(1.37)	4.79(1.54)	3.89(1.45)	4.68(1.43)	4.29(1.48)
	고	2.60(0.98)	3.55(0.82)	3.00(1.01)	5.14(0.94)	4.41(0.93)	4.74(0.99)	3.83(1.60)	4.07(0.97)	3.95(1.32)
	전체	2.97(1.09)	3.83(1.07)	3.39(1.15)	4.65(1.39)	4.89(1.25)	4.77(1.32)	3.86(1.51)	4.42(1.28)	4.14(1.42)
외향성	저	2.89(1.04)	3.40(0.91)	3.12(1.00)	5.00(1.10)	5.42(1.07)	5.24(1.09)	3.79(1.49)	4.53(1.41)	4.16(1.49)
	고	3.09(1.22)	4.29(1.06)	3.76(1.26)	4.40(1.53)	4.29(1.21)	4.35(1.37)	3.94(1.54)	4.29(1.13)	4.11(1.35)
	전체	2.97(1.09)	3.83(1.07)	3.39(1.15)	4.65(1.39)	4.89(1.25)	4.77(1.32)	3.86(1.51)	4.42(1.28)	4.14(1.42)
의존성	저	3.20(1.03)	4.14(1.09)	3.75(1.15)	3.93(1.38)	4.79(1.43)	4.42(1.45)	3.63(1.27)	4.52(1.32)	4.14(1.36)
	고	2.85(1.13)	3.53(0.99)	3.14(1.11)	5.15(1.18)	5.00(1.06)	5.08(1.11)	4.00(1.63)	4.31(1.25)	4.14(1.47)
	전체	2.97(1.09)	3.83(1.07)	3.39(1.15)	4.65(1.39)	4.89(1.25)	4.77(1.32)	3.86(1.51)	4.42(1.28)	4.14(1.42)
성역할 신념	저	3.20(1.03)	4.14(1.09)	3.75(1.15)	3.93(1.38)	4.79(1.43)	4.42(1.45)	3.63(1.27)	4.52(1.32)	4.14(1.36)
	고	2.85(1.13)	3.53(0.99)	3.14(1.11)	5.15(1.18)	5.00(1.06)	5.08(1.11)	4.00(1.63)	4.31(1.25)	4.14(1.47)
	전체	2.97(1.09)	3.83(1.07)	3.39(1.15)	4.65(1.39)	4.89(1.25)	4.77(1.32)	3.86(1.51)	4.42(1.28)	4.14(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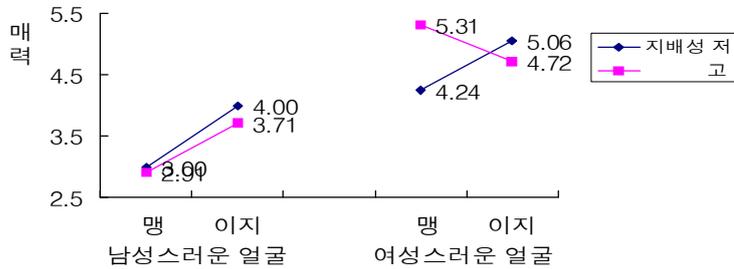


그림 1. 지배성, 여성성, 및 이지성의 삼원상호작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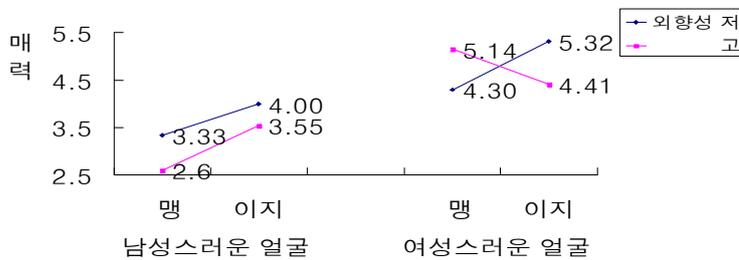


그림 2. 외향성, 여성성, 및 이지성의 삼원상호작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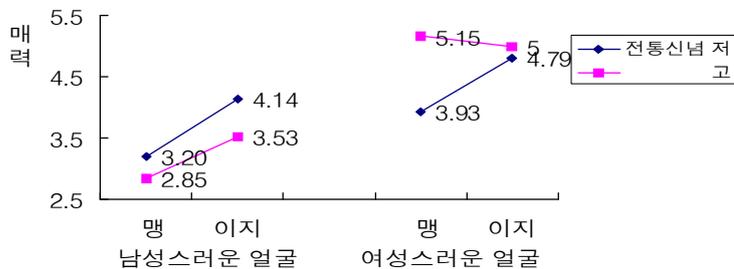


그림 3. 전통 신념, 여성성, 및 이지성의 삼원상호작용 효과

평가하였다, 남성성 $F(1, 128) = 3.94, p < .05$, 전통적 성역할 신념 $F(1, 128) = 3.74, p < .055$. 반면에 의존성이 낮은 남성들(매력 평가 $M = 3.12$)이 높은 남성들($M = 3.72$)보다 남성스러운 얼굴 인상을 지닌 여성을 더욱 덜 매력적이라고 평가하였다, $F(1, 128) = 4.34, p < .05$.

한편 여성스러운 얼굴 인상을 지닌 여성에 대한 매력을 평가한 결과에서는 평가하는 남성의 남성성 수준에 따라서 매력의 평가가 다르지 않고 모두 매력이 높다고 평정하였으며(저 매력 평가 $M = 4.57$, 고 $M = 5.00$), 전통적 성역할 신념과 의존성 수준에 따라서만 매력의 평가가 달랐다. 구체적으로 전통적 성역할 신념이 높은 남성들(매력 평가 $M = 5.08$)은 낮은 남성들($M = 4.42$)에 비해서

여성스러운 얼굴 모습의 여성이 더 매력적이라고 평가한 반면에, $F(1, 128) = 6.08, p < .05$, 의존성이 높은 남성들(매력 평가 $M = 4.35$)은 의존성이 낮은 남성들($M = 5.24$)에 비해서 여성스러운 얼굴 모습의 여성을 덜 매력적이라고 평가하였다, $F(1, 128) = 11.09, p < .001$. 따라서 남성성이나 전통적 성역할 신념이 높은 남성들과 의존성이 낮은 남성들은 각각 남성성이나 전통적 성역할 신념이 낮거나 의존성이 높은 남성들보다 (가설 4-1) 남성스러운 얼굴 모습의 여성에게 덜 매력을 느끼고, (가설 4-2) 여성스러운 얼굴 모습의 여성에게 더 매력을 느낄 것이라는 가설 4의 예언들 가운데 남성성에 관한 세부 가설만 기각되고 그 이외의 다른 개인차 요인들에 관한 세부 가설들은 지지되었다.

이지성 얼굴 인상차원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 특성들 : 남성 평정자가 지니는 성격 특성들은 멍하거나 이지적인 얼굴 인상을 지닌 여성 사진에 대한 매력의 평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남성들은 자신이 어떤 성격 특성을 지녔는지와 무관하게 이지적인 얼굴 모습의 여성을 멍해 보이는 여성보다 매력적이라고 평가하는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

얼굴 인상의 여성성, 이지성 및 성격특성의 삼원상호작용 : 남성 평정자의 지배성, 외향성, 및 전통적 성역할 신념이 각각 여성성 및 이지성의 얼굴 인상 차원에 따른 매력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지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지배성, 외향성, 및 전통적 성역할 신념은 얼굴 인상의 여성성 및 이지성 차원이 매력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였다. 즉, 남성의 지배성, 외향성, 및 전통적 성역할 신념 수준에 따라서 여성성 및 이지성 인상 차원이 매력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달랐다.

얼굴 인상의 여성성 수준에 따라서 단순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남성스러운 얼굴 모습의 여성에 대한 매력의 평가에서는 세 성격 특성에서 모두 성격 특성의 수준과 상관없이 이지성 인상 차원이 매력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다시 말해서 지배성, 외향성, 혹은 전통적 성역할 신념이 높거나 낮은 남성 모두 남성스럽고 멍한 얼굴 모습의 여성(지배성 고 매력평가 $M = 2.91$ 저 $M = 3.00$, 외향성 고 $M = 2.60$ 저 $M = 3.33$, 전통적 성역할 신념 고 $M = 2.85$, 저 $M = 3.20$)을 남성스럽고 이지적인 얼굴 모습의 여성(지배성 고 매력 평가 $M = 3.71$ 저 $M = 4.00$, 외향성 고 $M = 3.55$, 저 $M = 4.00$, 전통적 성역할 신념 고 $M = 3.53$, 저 $M = 4.14$)보다 덜 매력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지배성 $F(1, 128) = 7.78, p < .01$, 외향성 $F(1, 128) = 6.71, p < .02$, 전통적 성역할 신념 $F(1, 128) = 6.52, p < .05$.

반면에 여성스러운 얼굴 모습의 여성에 대한 매력의 평가에서는 이지성의 인상 차원과 평정자의 개인차 요인들인 지배성, 외향성, 및 전통적 성역할 신념이 각각 유의한 2원 상호작용 효과를 보였다, 지배성 $F(1, 128) = 5.75, p < .05$, 외향성 $F(1, 128) = 9.46, p < .01$, 전통적 성역할 신념 $F(1, 128) = 3.11, p < .08$.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스럽고 이지적인 얼굴 모습의 여성에 대한 매력의 평가는 지배성이나 전통적 성역할 신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은 반면에, 지배성 $F(1, 128) = 0.68, p > .40$, 전통적 성역할 신념 $F(1, 128) = 0.28, p > .58$, 이 여성에 대한 매력의 평가는 외향성에 따라서 달라서 외향성 수준이 높은 남성들($M = 4.41$)은 낮은 남성들($M = 5.32$)보다 여성스럽고 이지적인 얼굴 모습의 여성을 덜 매력적이라고 평가하였다, $F(1, 128) = 5.29, p < .05$. 한편 여성스럽고 멍한 얼굴

모습의 여성에 대한 평가는 지배성, 외향성, 및 전통적 성역할 신념에 따라서 달랐다. 즉, 지배성, 외향성, 및 전통적 성역할 신념이 높은 남성들(지배성 $M=5.31$, 외향성 $M=5.14$, 전통적 성역할 신념 $M=5.15$)이 낮은 남성들(지배성 $M=4.24$, 외향성 $M=4.30$, 전통적 성역할 신념 $M=3.93$)에 비해서 여성스럽고 멍한 얼굴 모습의 여성을 더 매력적으로 평가하였다, 지배성 $F(1, 128) = 6.33, p<.05$, 외향성 $F(1, 128) = 4.22, p<.05$, 전통적 성역할 신념 $F(1, 128) = 8.73, p<.01$.

따라서 지배성, 외향성, 혹은 전통의 성역할 신념이 높은 남성들은 그렇지 않은 남성들보다 (가설 5-1) 여성스러우면서 이지적인 얼굴 인상을 지닌 여성을 덜 매력적으로 평가하고, (가설 5-2) 여성스러우면서 멍한 얼굴 인상을 지닌 여성을 더 매력적이라고 평가할 것이라는 가설 5의 예언들 가운데 지배성 및 전통적 성역할 신념에 관한 5-1의 가설을 제외한 다른 모든 가설들이 지지되었다. 이 결과들로 볼 때 남성의 외향성은 여성스러운 얼굴 모습의 여성이 이지적으로 보이는지 멍해 보이는지에 따라서 매력의 평가를 달리 하도록 하는 성격 특성이며, 지배성과 전통적 성역할 신념은 여성스러우면서 멍해 보이는 얼굴 모습에 대한 매력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데이트 상대로서, 배우자로서 매력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남성의 성격 특성들

본 연구에서는 남성들에게 여성의 전반적 매력을 측정하는 문항 이외에 호감 수준을 여러 단면에서 알아보기 위하여 이 여성을 데이트 상대로서, 그리고 배우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7점척도(1 매우 싫다~7 매우 좋다)로 측정하였다. 데이트 상대 및 배우자로서 선호를 측정할 경우에는 얼굴 사진에서 제공된 시각 정보들을 해석할 때 전반적 매력을 측정할 경우보다 자신과 관련시켜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이경성·한덕웅, 2003). 이처럼 자신과 관련지어 상대방의 매력을 평정하게 되면 매력 판단에 요구되는 정보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제공된 인상 정보만으로 매력을 평가하게 되면 수준이 더 낮아지고 매력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 특성 역시 매력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이 각기 달라서 영향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이 가능성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매력을 측정하는 나머지 두 문항에 대해서도 독립변인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전반적 매력, 데이트 상대로서, 그리고 배우자로서 선호를 측정할 결과는 순서대로 4.14, 3.38, 3.26이어서 전반적으로 매력을 평가하였을 때보다 데이트 상대나 배우자로서 매력을 평가하게 하면 덜 매력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이 결과는 자신과 관련지어 상대방의 매력을 평정할 경우 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져서 매력의 평가가 더 낮아짐을 시사한다.

둘째, 여성의 얼굴 인상이 남성적인지 여성적인지, 그리고 멍한지 이지적인지에 따라서 데이트 상대나 배우자로서 선호를 평가한 결과는 전반적 매력을 평가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데이트 상대로서 선호를 측정할 결과에서 이지성의 주효과가 .06 수준에서 유의한 경향을 보인 점을 제외하면 데이트 상대나 배우자로서 선호를 측정할 결과는 전반적 매력을 평가한 결과와 동일하였다.

셋째, 데이트 상대로서 선호를 측정했을 때에 전반적 매력을 측정해서 얻은 결과와 달리 지배성 및 외향성 수준에 따라서 얼굴 인상의 이지성이 매력의 평가에 다른 영향을 미쳤다. 즉, 지배성(매력의 평가 $M=3.20$)이나 외향성($M=3.14$) 수준이 높은 남성들이 각각 지배성($M=4.07$) 혹은 외향성($M=3.95$) 수준이 낮은 남성들보다 이지적인 얼굴 모습의 여성을 데이트 상대로서 덜 선호했다. 반면에 멍한 얼굴 모습의 여성에 대해서는 지배성(저 $M=3.00$, 고 $M=3.42$)이나 외향성(저 $M=3.23$, 고 $M=3.07$)의 수준에 따라서 데이트 상대로서 선호가 다르지 않았다.

배우자로서 선호를 측정한 결과에서도 지배성의 수준에 따라서 이지성 인상 차원의 효과가 달라서 지배성 수준이 높은 남성들(3.09)이 낮은 남성들(3.90)에 비해서 이지적인 얼굴 모습의 여성을 덜 선호하였다.

지금까지 데이트 상대나 배우자로서 선호도를 알아본 결과들은 대체로 매력을 측정한 결과와 일관되었다. 그러나 전반적 매력을 평정할 때와 달리 데이트 상대나 배우자로서 선호를 판단할 경우에는 남성의 지배성 및 외향성에 따라서 이지성의 인상 차원이 매력의 평가에 달리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지배적이거나 외향적인 남성에게 자신과 관련지어 여성의 매력을 평가하도록 할 경우에 유순한 성격을 지녔으리라 추론되는 얼굴 모습의 여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데 따른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1) 선행연구의 결과 가운데 남성들이 남성스러우면서 멍한 얼굴 인상을 지닌 여성을 다른 여성들에 비해서 덜 매력적으로 평가하는 결과가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남성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을 때에도 반복해서 검증되는지 알아보고, (2) 평가자인 남성의 성격 특성들에 따라서 이 두 인상 차원들이 매력의 평가에 달리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서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남성 129명에게 ‘남자답다-여성스럽다’ 차원과 ‘멍하다-이지적이다’ 차원에서 각각 높거나 낮은 값을 지니는 한 여성의 얼굴 사진을 제시하여 매력을 평가하도록 하고, 자신의 성격 특성을 측정하는 문항들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들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에 참가한 남성들은 여성스러운 얼굴 모습의 여성에 대해서는 그 여성이 멍해 보이든지 이지적으로 보이든지 상관없이 매력적이라고 평가한 반면에, 남성스러운 얼굴 모습의 여성에 대해서는 멍해 보이면 이지적으로 보일 때보다 덜 매력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이 결과로부터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이경성과 한덕웅(2003)의 선행연구의 결과가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남성에게도 일관되게 나타났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자극으로 사용한 얼굴사진들은 여성성이나 이지성 이외에 또 다른 얼굴 인상 차원들, 예컨대 ‘사납다-순하다’나 ‘경박하다-점잖다’ 차원 등에서 각기 다른 값을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조작한 인상 차원에 의해서 매력의 평가가 달라졌다고 결론지으려면 다른 차원들이 매력평가에 미치는 효과를 통계적으로 제외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얻어지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한국 사람들이 얼굴 인상을 ‘순하다-사납다’ ‘이지적이다-맹하다’ ‘점잖다-경박하다’, ‘여성스럽다-남자답다’의 네 차원에서 지각한다는 선행연구(이경성, 2002)를 근거로 여성성이나 이지성의 두 인상 차원 이외의 다른 두 차원들의 효과를 통계적으로 제외하더라도 매력의 평가에 대해서 동일한 결과가 얻어지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위계적 중다회귀방법을 사용하여 ‘사납다-순하다’와 ‘경박하다-점잖다’ 인상 차원에서 평정한 값을 첫 단계에 투입하고 난 후에, 본 연구에서 조작한 여성성, 이지성, 그리고 두 변인의 상호작용을 두 번째 단계에 예측변인으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납다-순하다’ 차원과 ‘경박하다-점잖다’ 차원이 매력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제외하고도 본 연구에서 조작한 여성성과 이지성의 주효과, 및 여성성과 이지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모두 유의하였다, 전체 $R^2 = .36$, 여성성의 주효과 $t = 3.77$, $p < .001$, 이지성의 주효과 $t = 2.94$, $p < .01$, 여성성과 이지성의 상호작용 효과 $t = 2.43$, $p < .05$. 이 결과를 통해서 남성들이 대체로 여성의 얼굴 모습만을 보고 인상을 형성하여 매력 수준을 평가하게 되면 얼굴 인상 차원 가운데 여성성과 이지성의 두 차원들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남성스럽거나 여성스러운 얼굴 인상을 지닌 여성에 대한 매력의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 성격 특성들의 조절 효과를 알아본 결과에서는 남성성과 전통적 성역할 신념이 높은 남성, 그리고 의존성이 낮은 남성들이 각각 남성성이 낮거나 전통적 성역할 신념이 낮은 남성, 그리고 의존성이 높은 남성들에 비해서 남성스러운 얼굴 모습의 여성을 덜 매력적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전통적 성역할 신념이 높은 남성과 의존성이 낮은 남성들은 각각 그렇지 않은 남성들에 비해서 여성스러운 얼굴 모습의 여성을 더 매력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이 결과로부터 남성성이 높은 남성과 전통적 성역할 신념이 높은 남성들이 남성스럽기보다 여성스러운 얼굴 인상을 지닌 여성을 더 선호하지만 반면에 의존성이 높은 남성들은 낮은 남성들에 비해서 여성스럽기보다 남성스러운 얼굴 인상을 지닌 여성을 더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아 내었다.

셋째, 지배성, 외향성, 및 전통적 성역할 신념이 높은 남성들은 낮은 남성들에 비해서 각각 여성스러우면서 맹한 얼굴 모습의 여성이 더 매력적이라고 평가하였다. 한편 여성스럽고 이지적인 얼굴 모습의 여성에 대한 평가는 남성들이 지니는 지배성 및 전통적 성역할 신념에 따라서 다르지 않았으며, 외향성에 따라서는 달라서 외향성이 높은 남성들은 낮은 남성들에 비해서 여성스럽고 이지적인 얼굴 모습의 여성을 덜 매력적으로 평가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외향성이 개념적 정의나 측정에서 지배적 특성(예, Goldberg, 1981)을 포함하기 때문에 지배성과 상관이 높으리라고 가정되며, 따라서 외향성이 매력평가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성의 지배성에 관한 가설과 동일한 예측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외향성과 지배성이 어느 정도 관련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한 결과, 외향성과 지배성의 상호상관은 $.43(p < .0001)$ 이었다. 따라서 외향성이 지배성과 상호상관이 높으리라는 가정은 충족되었다.

본 연구의 한계와 장래 연구의 과제

본 연구의 한계와 장래 연구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매력 수준이 중간으로 평가되는 사진들 가운데 여성성과 이지성 차원에서 평정한 값이 7점척도에서 각각 4.5~4.7점이거나 3.11~3.34점인 사진을 가려내어서 이를 인상차원에서 높거나 낮은 조건의 사진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매우 높거나 낮은 평정치를 얻은 사진으로 인상차원을 조작하였을 때에도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얻어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여성스러운 얼굴 인상을 지닌 여성이 남성스러운 얼굴 인상을 지닌 여성보다 여성성의 수준에서 높게 추론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에 참가한 남성들에게 사진에 실린 여성의 성격을 추론하도록 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남성들은 여성스러운 얼굴 모습의 여성($M=3.14$)이 남성스러운 얼굴 모습의 여성($M=3.50$)보다 더 높은 여성적 성격을 지녔다고 추론하였다. 또한 남성들은 이지적인 얼굴 인상을 지닌 여성($M=3.36$)이 멍해 보이는 얼굴 모습의 여성($M=3.07$)보다 이지적 성격을 지녔다고 추론하였다. 이는 남성들이 여성의 얼굴 모습에서 여성의 성격을 추론하고 그 결과로 여성에 대한 전반적 매력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또한 지배성과 전통적 성역할 신념이 높은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남성들보다 여성스러우면서 멍해 보이는 얼굴 모습의 여성을 더 매력적으로 평가하는 현상이 다음과 같은 논리에서 설명이 가능하다고 기술하였다. 즉, 지배성 혹은 전통적 성역할 신념이 높은 남성들은 낮은 남성들보다 유순한 여성을 선호하는데, 여성스럽고 멍한 얼굴 모습의 여성이 더 유순하리라고 지각하여 더 매력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지배성 혹은 전통적 성역할 신념이 높은 남성들이 낮은 남성들에 비해서 여성스럽고 멍한 얼굴 모습의 여성을 더 유순하다고 지각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여성스러우면서 멍해 보이거나 혹은 여성스러우면서 이지적으로 보이는 얼굴 모습을 지닌 여성들의 유순성 지각이 남성의 지배성 혹은 전통적 성역할 신념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스러우면서 이지적인 얼굴 모습을 지닌 여성이 어느 정도 유순한지에 대한 평가는 남성의 지배성 및 전통적 성역할 신념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았지만(지배성 고 $M=3.53$ 저 $M=3.45$, 전통적 성역할 신념 고 $M=3.50$, 저 $M=3.49$), 반면에 여성스러우면서 덜 이지적인 얼굴 모습을 지닌 여성에 대한 평가는 남성이 지닌 성격 특성에 따라서 달랐다. 구체적으로 지배성이 높은 남성($M=3.84$)과 전통적 성역할 신념이 높은 남성들($M=3.83$)은 이 특성에서 낮은 남성들(지배성 $M=3.39$, 전통적 성역할 신념 $M=3.18$)보다 여성스러우면서 덜 이지적인 얼굴 모습의 여성이 더 유순하다고 지각하였다, 지배성 $F(1, 128) = 6.96, p < .01$, 전통적 성역할 신념 $F(1, 128) = 9.49, p < .01$. 이 결과는 지배성이나 전통적 성역할 신념이 높은 남성들이 낮은 남성들보다 여성스럽고 덜 이지적인 얼굴 모습의 여성이 더 유순하다고 지각하여 더 매력적이라고 평가하였음을 시사한다.

장래 연구를 통해서 남성들이 ‘남자답다-여성스럽다’와 ‘멍하다-이지적이다’ 인상 차원에서 각각 높거나 낮은 값을 얻은 여성들이 어떤 성격을 지녔다고 추론하는지, 그리고 이 추론을 매개로 매력의 평가가 달라지는지 매개과정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남성들이 여성의 얼굴 모습을 보고 여성의 매력을 평가하는데 기여한다고 가정한 성격요인들 이외에 남성의 중요

한 성격 특성들을 가려내어서 여성의 매력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선행연구와 본 연구에서 매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상 차원을 직접적으로 도출한 결과가, 여성의 매력을 평가하는데 기여하는 중요한 성격 특성들을 알아내어 이 성격 특성의 추론에 영향을 미치는 얼굴 인상 차원을 찾아낸 결과와 일관되는지 검증할 수 있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로 보면 20대와 30대의 남성이 여성의 얼굴을 보고 매력을 평가하면 여성성과 이지성 차원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인차 요인들로서 남성이 지니는 남성성, 지배성, 외향성, 전통적 성역할 신념, 및 의존성이 여성의 매력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김양희 · 정경아 (2000).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Korean Gender Egalitarianism Scale)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4, 23-44.
- 김은희 · 윤호균 (2002). 집착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4, 359-373.
- 이경성 (2002). 한국사람들은 사람들의 얼굴 인상을 어떤 차원들로 지각하는가?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6, 51-74.
- 이경성 · 한덕웅 (2003). 젊은 남성들은 어떤 얼굴 모습의 여성에게 매력을 느끼는가?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7, 73-83.
- 정진경 (1990). 한국성역할검사(KSRI). 한국심리학회 1990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57-67.
- Beech, J. R., & Whittaker, J. (2001). What is the female image projected by smoking? Japan: *Psychologia: An Inter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in the Orient*, 44, 230-236.
- Berry, D. S. (1991). Attractive faces are not all created equal : Joint effects of facial babyishness and attractiveness on social percep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7, 523-533.
- Berry, D. S., & Brownlow, S. (1989). Were the physiognomists right? Personality correlates of facial babyishnes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5, 266-279.
- Berry, D. S., & McArthur, L. Z. (1985). Some components and consequences of a babyfa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8, 312-323.
- Bridges, J. S. (1981). Sex-typed may be beautiful but androgynous is good. *Psychological Reports*, 48, 267-272.
- Cunningham, M. R. (1986). Measuring the physical attractiveness : Quasi-experiments on the socio-biology of female beau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131-161.
- Cunningham, M. R., Barbee, A. P., & Pike, C. L. (1990). What do women want? Facialmetric assessment of multiple motives in the perception of male facial physical attractiv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61-72.

- Ernulf, K. E., & Innala, S. M.(1998). Masculinity, Feminity, and sexual attractiveness: A cross-national perspective. *Scandinavian Journal of Sexology*, 1, 107-120.
- Goldberg, L. (1981). Language and Individual differences: The search for universals in personality lexicons. In L. Wheeler(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pp. 141-165). Beverly Hills, CA:Sage.
- 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2001). A Scientific Collaboratory for the Development of Advanced Measures of Personality Traits and Other Individual Differences (<http://ipip.ori.org/>). Internet Web Site.
- Jones, D.(1995). Sexual selection, physical attractiveness, and facial neoteny. *Current Anthropology*, 36, 723-748.
- Keisling, B, L., & Gynther, M. D. (1993). Male perceptions of female attractiveness: The effects of targets' personal attributes and subjects' degree of masculinit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9, 190-195.
- Kenrick, D. T., Neuberg, S. L., Zierk, K. L., & Krones, J. M.(1994). Evolution and social cognition: Contrast effects as a function of sex, dominance, and physical attractivenes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 210-217.
- Kowner,-R., & Ogawa, T. (1995). The role of raters' sex, personality, and appearance in judgments of facial beauty. *Perceptual-and-Motor-Skills*. 81, 339-349.
- Langlois, J. H., & Roggman, L. A.(1990). Attractive faces are only average. *Psychological Science*, 1(2), 115-121.
- McArthur, L. Z., & Berry, D. S. (1987). Cross-cultural agreement in perceptions of babyfaced adult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8, 165- 192.
- McKelvie, S. J. (1993). Stereotyping in perception of attractiveness, age, and gender in schematic face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21, 121-128.
- Murstein, B. I. (1970). Stimulus-Value-Role: a theory of marital choi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2, 465-481.
- Nida, S. A., & Williams, J. E. (1977). Sex-stereotyped traits, physical attractiveness, and interpersonal attraction. *Psychological Reports*, 41, 1311-1322.
- Noorm, F., & Evans, D. C.(2003). The effect of facial symmetry on perceptions of personality and attractivenes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7, 339-347.
- Paunonen, S. V., Ewan, K., Earthy, J., Lefave, S., & Goldberg, H.(1999). Facial features as personality cues. *Journal of Personality*, 67, 555-583.
- Wheeler. L., & Kim. Y. M. (1997). What is beautiful is culturally good : The physical attractiveness stereotype has different content in collectivistic cultur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3, 795-800.

Winch, R. F.(1958). *Mate selection: A study of complementary needs*. N.Y.: Harper.

Zebrowitz, L. A., Montepare, J. M. & Lee, H. K. (1993). They don't all look alike : Individuated impressions of other racial 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85-101.

K C I

The effects of men's personality on the judgment of women's facial attractiveness

Kyung-Seong Lee · Doug-Woong Hahn · Woong-Jin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kyunkwan University

Korea Marriage
Culture Institute

This study examined the following hypotheses: First, as found in the previous study(Lee & Hahn, 2003) with male college students, both of the 'womanly- manly' and 'intelligent-dull' facial dimensions would be also important in the attractiveness ratings of women's faces among men in their 30s. Second, sex-role beliefs, masculinity, dominance, extroversion, and dependency of men would moderate these effects.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Men rated womanly faces as more attractive than manly faces, and men rated manly and dull faces as less attractive than the faces in the other conditions; (2) Manly female faces were rated as less attractive by men who were high in masculinity, high in traditional sex-role, or low in dependency. And womanly female faces were rated as more attractive by men who were high in traditional sex-role or low in dependency; (3) Women with the womanly and dull faces were rated as more attractive by men who were high in dominance, extroversion, or traditional sex-role.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y were discussed.

Keywords: woman's face, 'womanly-manly' dimension, 'intelligent-dull' dimension, attraction, masculinity, traditional sex-role, dominance, extroversion, dependency